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⑭ 부처님 사랑 참사랑

나 중심의 사랑

L씨는 절에 열심히 다니며 스스로 신실한 불자라고 생각했다. 몇 년 전 청년회에서 알게 된 법우와 결혼할 때 이제 함께 더 열심히 절에 다니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진 후, 곧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자 마음이 달라졌다. '이제 나만의 가족을 가지게 되었구나' 하면서 원지 절에서는 마음이 멀어졌다. 예전과는 비할 수 없이 곁을 떠났었다.

날이 갈수록 신앙에 대해서도 나의 남편으로만 보려는 마음이 들었다. 신앙은 꾸준한 청정 모임을 나가고 있었다. "당신은 절에만 열심히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처음에는 달래던 신앙도 나중에는 화를 내게 되었다. "당신은 정말 변했어.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 절에는 나보다 더 열심히 다녔는데 왜 요즘은 안 가는 거지?" 그리고 나까지 가지 말라는 말이야?" 신앙은 태어날 아기에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당신은 절에만 열심히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처음에는 달래던 신앙도 나중에는 화를 내게 되었다. "당신은 정말 변했어.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 절에는 나보다 더 열심히 다녔는데 왜 요즘은 안 가는 거지?"

그리고 나까지 가지 말라는 말이야?" 신앙은 태어날 아기에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당신은 절에만 열심히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처음에는 달래던 신앙도 나중에는 화를 내게 되었다. "당신은 정말 변했어.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 절에는 나보다 더 열심히 다녔는데 왜 요즘은 안 가는 거지?"

이제 두 사람은 매일 한 번 이상 말다툼 없이 넘어가는 날이 드물게 되었다. L씨의 요구는 언제나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함께 보내자는 것이고, 신앙은 절에도 같이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자는 것이었다.

남편의 기도

어느 날 신앙이 당분간 일요일에도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새로운 해외 업무 계획이 나와 그 준비로 일요일에 시간을 내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신앙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신앙은 일요일에도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야 돌아왔다. 그렇게 두 달이 넘는 어느 날 모처럼 절에 갔다. 잘 아는 스님을 보았다. "신

도 해 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살은 어떻게 할 거지? 계속 부처님을 외면하기로 했나?" 가슴이 뭉클해졌던 것 같았다. 부처님을 외면하다니...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지.

법당에 가서 절을 올리니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신앙이 나 대신 이렇게 절하고 봉사하며 어떤 심정일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나는 왜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오죽하면 거짓말까지 했을까. 그 날 밤 신앙에게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며 울었다. 그는 고마워했다. "당신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면서 목이 메었다. "부처님이 우리 백일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며 기뻐했다.

L씨는 참회하며 점차 예전의 신행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다. 둘 사이도 좋아지게 되었고 다투는 일이 줄었다. 아이도 절에 가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들의 귀움을 받고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니까 이렇게 가정생활이 좋을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신앙이 바로 부처님이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에 평화로운 행복감이 느껴졌다.

불심은 행복의 뿌리

가정에서 불심은 집안의 뿌리와 같다. 뿌리를 외면하고 나 위주로 집착하면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다름과 공허함만 가져오기 쉽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매사에 나를 앞세우는 그 아집을 발견하라. 발견해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다.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로 서로를 바라보고 마음을 다스려가는 가정에는 웃음과 사랑이 풍만하게 피어날 것이다.

황수경(동국대 신학과 강사)

'법우'였다가 '부부'가 된 뒤로 거리감

일요일 회사 간다던 남편 알고보니 절에서 봉사

함께 신행생활 열심히...가정의 행복 되찾아

량이 대단해. 일요일에도 나와 종일 기도하고 봉사하지 않나." L씨는 귀를 의심했다. "일요일에도?" 아니, 회사에 간다더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던 말인가. 충격을 받아 잠시 정신이 없었다.

"사실 신앙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보살 걱정이 좀 많은 게 아니요. 결혼 전에 기도하고 봉사하는 훌륭한 불자였던 보살이 변했다고. 자기 잘못이 아니냐는 거야. 이대로는 건지기 어렵다고 하면서 백일기도를 부탁했어요. 일요일에는 보살 대신 108배와 기도를 하고 봉사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안의 화를 이기고 (하)

이기용 서울시 은평구

누이에 대한 원망 속에서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양다물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기계 부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사서 전국을 돌며 부품을 팔았습니다.

누이가 없는 형편에 굶어가며 모아둔 돈을 빌렸습니다. 장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장사가 좀 잘 되자 동업자 친구는 쉬엄쉬엄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자친구를 태우고 놀러 다니는 일도 비밀비해했습니다. 처음엔 말렸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자고 했고.

하지만 어느 순간 저도 같이 즐기고 있었습니. 버는 것 이상으로 쓰는 남비벽도 찾아왔습니다. 점점 돈이 돌지를 않았습니다. 재고는 쌓였고 물건 값 폭락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죠.

결국 부도를 내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서울에서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고향 인근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를 도와줄 친척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않은 않았습니. 그러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않은 않았습니. 그러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않은 않았습니. 그러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않은 않았습니.

장사 잘 되어 신났지만 나타해져

부도·빚더미...아내와 기도로 극복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앞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보라 했습니다. 가장 힘이 들 때 증생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자비로운 분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밀저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관세음보살을 불러왔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부르기에 속쓰러워서 마음속으로 입 속으로 우물우물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에 의지하면서 생활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누이가 연락해와 저와 부부 결혼식을 올려줄테니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사는 동생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누이가 그동안 돈을 모았던 겁니다. 예전에 사 일한다고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원망이나 해대던 저에게 말입니다.

마음 속 깊은 뜨거운 덩어리와 함께 관세음보살이 제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아내와 부둥켜안고 그날 밤 눈물만 흘렸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친척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울던 뒤늦은 결혼식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이에 대해 원망을 가졌던 저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절에 다니며 신행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부처님 전에 무릎 꿇고 깊이 감사했습니다. 부모 같은 누이들에게 품었던 한은 부처님을 빌 때마다, 그 앞에 머리 조아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되뇌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소리 내어 부를 수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 절실하게 관세음보살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에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고 다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20여년 만에 다시 서울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젊었을 때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제가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전 새로운 인생을 얻었고 제 안의 화와 원망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끝)



그림: 문영성

신행게니판

회계사 특별초청법회

태태어기영가천도를 위한 49재 기도를 올리고 있는 서울 회계사가 5월 12일 오전 11시 여성학자 오숙희씨를 초청해 '아름다운 성, 사랑, 생령'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태태어기영가천도는 낙태가 필요 없는 마음자리와 세상을 가꾸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반생명 문화의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회계사가 마련했다. 한편 태태어기영가천도제의 마지막 회향일인 5월 19일 오전 10시에는 보살계 수계식이 열린다. (02)902-2663

승인선원 2007년도 참학교 사계동주

서울 승인선원이 5월 12-13일 제56차 사계동주 주 체험수련회를 개최한다. 참학학교 지도법사 두진 스님이 지도하는 사계동주 프로그램은 삶과 죽음의 명상, 임사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사계동주는 생·로·병·사와 고·집·멸·도를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에 비유한 것으로 사계가 우리와 함께 하듯이 생·로·병·사도 우리와 함께하는 고통의 원인이므로 궁극적으로 사생제와 팔정도의 진의를 바르게 알아 끊임없이 수행과 정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경사에서 열리는 사계동주 프로그램은 1

차 체험수련으로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2차 수행정진의 자기완성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올해는 매일 셋째 주 주말에 체험수련이 마련돼 있다. 문의 017-334-4978

승광사 보살계 수계법회

순천 승광사는 5월 12-13일 보조국사 중재대법회와 보살계 수계법회가 열리는 삼일법사를 봉행한다. 제797기 불일보조국사 중재는 13일 국사전에서, 보살계 수계법회는 12일 오후 2시-13일 대웅전에서 진행된다. (061)755-0107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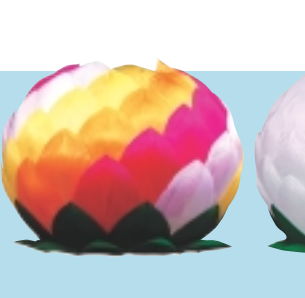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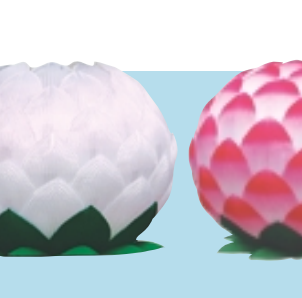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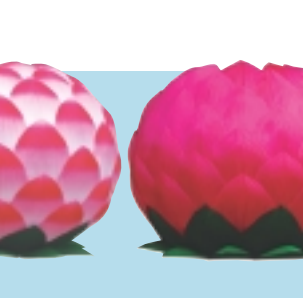
종 등



팔각봉촉접등



공 단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 단 등



주름등(만월봉촉등)



청사초롱

광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